

주택담보대출 위축·中企 대출은 포화 은행들 “블루슈머를 잡아라”

(新 소비자 계층)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인 '블루 슈머(Blue Ocean Consumer)'. 얼마 전 통계청은 올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한국의 블루슈머'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갑수족 치열해지는 마케팅 전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新) 소비자를 찾아내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도 블루슈머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입원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규제 여파로 위축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소비계층 발굴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20대 후반과 30대 여성, 대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올해 은행권의 블루슈머로 꼽았다. <2030 워킹맘>을 잡아라 = 작년 금융권의 화두는 '여성 잡기'였다. 가정의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을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앞세운 이 통장은 출시 70여일 만에 2조원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도 여성 관련 금융 상품의 들끓

음이 주된 타깃이다. <미래 고객> 대학생들 모셔라 =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재테크가 단연 화두다. 재테크 동아리에 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다.

2030 워킹맘·대학생·외국인 노동자 등 주 타깃 삼아 금융상품 개발 집중 공략

겨냥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히트상품 대열에도 올랐다. 국민은행이 작년 9월 선보인 '명품 여성통장'이 대표적인 예.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수수료 우대, 야간 노상 강도의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가입 서비스 등

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다만 여성 전체를 겨냥하기보다는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여성이나 결혼 후 자녀를 한 명 정도 둔 30대 초·중반의 워킹맘(일하는 여

한 은행은 대학 브랜드를 내건 통장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환전·송금시장> 외국인도 주고객 = 은행들은 주요 수수료 수입원을 '방카슈랑스'·환전 및 송금 수수료' 순으로 꼽는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80여만명. 이들 상당수가 국내에서 받은 월급을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면 짝퉁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은행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노년층도 부각, 상품 개발은 신중> =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과 퇴직자들이 신 소비계층이라는데 은행들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관련 상품을 내놓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노년층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건강. 최근 건강 검진 서비스와 연계한 금융 상품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제도가 실시되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 주택저당 대출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전자서 출세하려면... 불륜·주식·골프·도박 조심 인사때 '도덕성 4대 기준' 적용

삼성전자에서 출세하려면 '불륜, 주식, 골프, 도박'을 조심하라.

삼성전자가 인사를 단행할 때 이같은 '도덕성 4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도석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사장은 최근 "능력·실적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이상문제, 주식, 골프, 도박"이라며 "특히 임원급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문제의 경우 일회성의 잘못된 만남까지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부담이 회사나 거래처에서 금융문제를 일으킬 때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최 사장은 "실제로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인사들의 90% 정도가 이 도덕성 기준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박은 전문 도박장에 일정한 멤버들과 지속적인 게임을 한 경우, 주식은 장기투자자 아니라 단타에 매달려 업무와 금전관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최 사장은 "부장까지 골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골프를 즐기지만 부적절한 돈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상무보급 이상의 임원은 850명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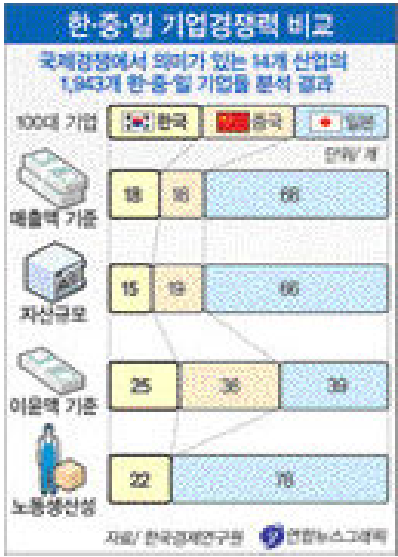
한국기업, 中·日 사이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이중압박 현상 심화

한국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 끼여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29일 발표한 '한·중·일 기업 경쟁력 비교(저자 박승록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2천여개 한·중·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요소생산성 등을 비교하고 고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한국기업들이 '넛크래커' 현상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경쟁에서 의미 있는 자동차, 석유화학, 컴퓨터, 가전, 반도체 등 14개 산업의 1천943개



한·중·일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규모 면에서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열세며 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들 가운데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은 일본이 66개인데 비해 한

국은 18개, 중국은 16개를 차지했으며 자산규모 100대 기업은 일본 66개, 중국 19개, 한국 15개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이윤액 기준 100대 기업 역시 한국 25개, 일본 39개, 중국 36개 등으로 한국이 가장 열세였다.

생산성 요소들을 보면 한국기업들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절대 열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1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은 22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 기업은 78개나 됐다. 체제 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고공 관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노동생산성 100위 이내의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자산생산성 100대 기업 역시 한국기업은 40개로 일본의 51개보다 적었으나 중국의 9개보다는 많았다.

반면에 한국기업들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100대 기업에 73개나 포함돼 일본(24개), 중국(3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29일 국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권요규 경제부총리의 차사를 경청하며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허가 건물 영업행위도 관급공사 피해 보상해야 국민고충처리위 권고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 하더라도 관급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 출입구 공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가구 판매,수리업을 하는 A씨가 제기한 영업손실 보상 청구에 대해 "A씨가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장기간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온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보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A씨의 영업장은 지하철 공사 이전부터 건축이 돼있던 데다 A씨가 장기간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손실보상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보다는 영업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은행들 '금리 변동' 행태 인상은 '빨리' 인하는 '늦게'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예금은행들이 콜금리 인상 때 저축성 수신금리는 느리게 올리는 반면 콜금리 인하 때는 수신금리를 재빨리 낮추는 행태가 최근 7년간의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29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석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통화정책과 금융기관의 비대칭적 금리조정"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999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 콜금리 변동이 금융기관의 예·수신 금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은 콜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신금리에 빠르게 반영하는 반면 콜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해 금리 조정이 비대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경쟁하에서 예금은행들간의 가격공모 가설과 전환비용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환비용 가설이란 예금주가 거래 은행을 교체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비용 때문에 금리 적용의 불리함을 감내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가설이다. /연합뉴스

국내외 긴축 우려 증시 발목 잡히나

전문가들 코스피지수 '박스권' 전망

연초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증시가 국내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우려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최대 수출처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이 고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 국내 양도소득세증세(CD) 금리 강제 등이 증시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1,300~1,400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을 작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0.4%로 4분기 연속 잠재성장률 9.5~10%를 넘어서는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이에 따라 조만간 금리인상 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긴축정

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3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8%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지표들의 호조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도배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소비회복으로 작년 4·4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0%에 이르러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올해 초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전세계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2월 증시가 올해 1·4분기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피지수의 예상 등락 범위를 1,320~1,420으로 제시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말정산 더 간편하게"

권요규 부총리, 금·면세유 등 탈세 대책 마련

권요규 경제부총리는 29일 "탈루 혐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제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의 차사에서 "지난해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무자료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무자료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기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확보와 관련, "의약품 등에 무선인식시스템(RFID)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FID는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 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으로 의약품에 도입되면 거래 흐름을 당국이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행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무자료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기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확보와 관련, /연합뉴스

설 전 '채불임금 청산' 지도

노동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17일까지를 '채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지방노동관서별로 비상근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체불근로자 보호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4%(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부키로 했다. 노동부 집계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조2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천614억원이 청산됐고 6천159억원이 체불사업주 사법처리, 524억원이 청산지도 중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호텔 프라도 | 프라도 호텔 사원 모집 | 초대졸/경력1년 | 1800~2000 | 01/31 | 062-654-9999 |
| HRN | [SK텔레콤]통신기술 남직원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1/31 | 062-529-2671 |
| 영창중공업 | [기술제] 생산/품질 관리 신입사원 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31 | 061-362-3800 |
| 핀솔스튜디오 | [상담사원/포토샵/사진촬영기사] 사원채용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31 | 062-372-5275 |
| 한국플루크 | 전기 전자 계속 제품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모집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2/02 | 02-539-6311 |
| 광주과학 | [과학교재] 영업/관리 및 납품 사원 모집 | 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2/02 | 011-640-9338 |
| 폭스존시나마 | 롯데시네마 첨단단 슈퍼바이저 채용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2/02 | 062-611-8582 |
| 휴로넷 | [주5일/정규]SK텔레콤(광주)114 상담원모집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2/03 | 02-780-9595 |
| 광주과학기술원 | 국제화센터 행정지원 사원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2/04 | 062-970-2061 |
| 동하이테크 | 네트워크/서버/보안/오리올 경력사원 모집 | 초대졸/경력4년 | 회사내규 | 02/04 | 062-371-9100 |
| 한국기업데이터 | 사무지원/조사보조/고객지원 사원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2/04 | 02-3215-2363 |
| 메니패스트푸드시스템 | [주]알렉스카 월드컵점 신입 및 아르바이트 모집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2/05 | 019-317-6451 |
| 오리올 호서팀 | 할인매장 근무 담당 정규직 여사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2/10 | 062-373-2393 |
| 신진정밀 | 유입밸브 조립 및 성능테스트 사원모집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2/10 | 062-954-0951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